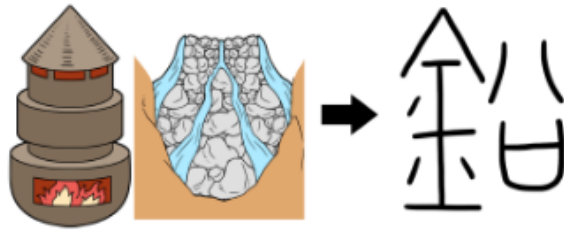


회의문자①



鉛

鉛자는 '납'이나 '흑연', '연필심'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鉛자는 金(쇠 금)자와 𨾏(높 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여기서 𨾏자는 산속 깊은 곳의 '높'을 뜻하는 글자이다. 납은 무거운 금속이지만 유연하여서 가공이 쉽다. 鉛자는 그러한 납의 성질을 표현하기 위해 무겁고 유연한 진흙을 뜻하는 𨾏자를 응용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鉛자는 무거운 성질을 가진 '납'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납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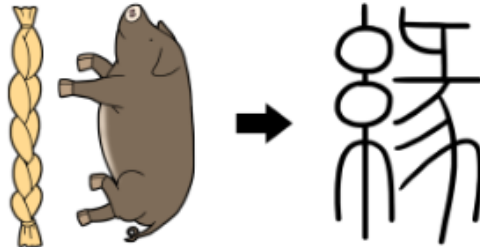
鉛

소전

鉛

해서

형성문자①



緣

緣자는 '인연'이나 '연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緣자는 糸(가는 실 사)자와 彖(판단할 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彖자는 豕(돼지 시)자가 변형된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단→연'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緣자는 사람 간의 보이지 않는 '줄'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이다. 그것을 '인연'이라고 한다. 그래서 緣자는 실을 그린 糸자를 응용해 서로를 연결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줄이라는 의미에서 '인연'이나 '연분'을 뜻하게 되었다.

인연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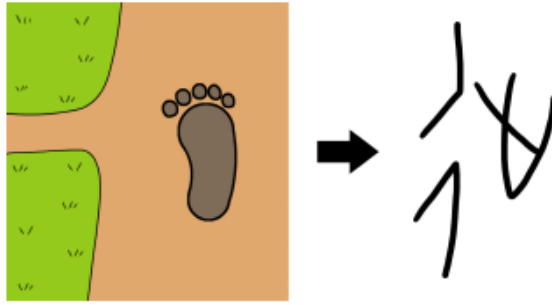
緣

소전

緣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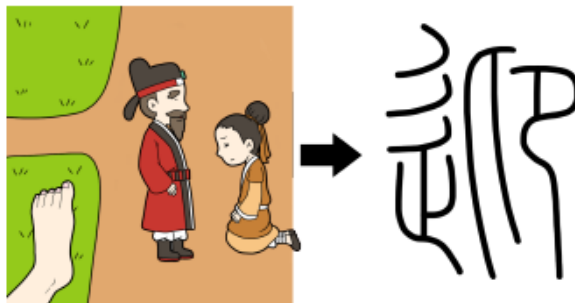
延

늘일 연

延자는 '늘이다'나 '늘어놓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延자는 廵(길게 걸을 인)자와 止(발 지)자 丿(빠침 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延자에 쓰인 것은 正(바를 정)자가 아니니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延자의 갑골문을 보면 길을 뜻하는 彳(조금 걸을 척)자에 止자만 止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𢇛(걸을 지)자이다. 그래서 '늘이다'라는 뜻은 𢇛자가 먼저 쓰였었다. 소전에서는 𢇛자의 발 부분에 丿자를 더하게 되면서 걸음걸이가 느릿하다는 뜻의 延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延자는 이외에도 '늘어놓다'나 '끌어들이다'와 같이 상황이나 사물이 늘어지는 모습도 표현하고 있다.

갑골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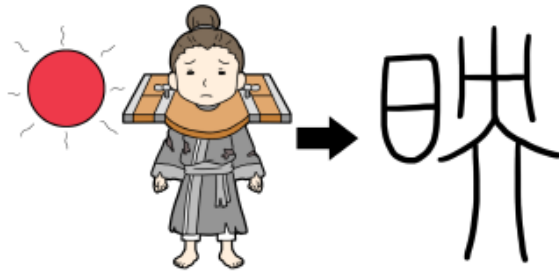
迎

맞을 영

迎자는 '맞이하다'나 '영접하다', '마중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迎자는 辶(쉬엄쉬엄 갈 착)자와 卩(나 앙)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卩자는 서 있는 사람과 무릎을 꿇은 사람을 함께 그린 것으로 이전에는 '우러르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迎자는 이렇게 우러러 모신다는 뜻을 가진 卩자에 辶자를 결합한 것으로 길에서 누군가를 정중히 맞이한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소전	해서

회의문자 ①



映

비칠
영(·)

映자는 '비치다'나 '반사하다', '희미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映자는 日(해 일)자와 央(중 앙 양)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央자는 목에 칼을 찬 사람을 그린 것으로 '가운데'나 '중앙'이라는 뜻이 있다. 映자는 이렇게 '중앙'이라는 뜻을 가진 央자에 日자를 결합한 것으로 태양이 하늘 중앙에서 세상을 밝게 비춘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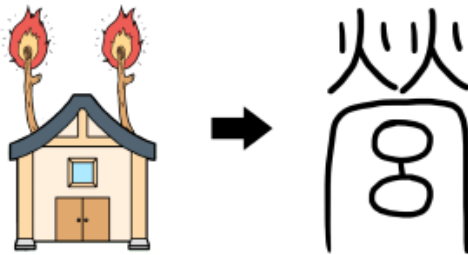
映

소전

映

해서

회의문자 ①



營

경영할
영

營자는 '경영하다'나 '계획하다', '짓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營자는 火(불 화)자와 宮(집 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宮자는 큰 대궐을 그린 것으로 '집'이나 '가옥'이라는 뜻이 있다. 營자는 이렇게 '가옥'을 뜻하는 宮자에 火자를 결합한 것으로 집에 불을 켜고 밤새워 일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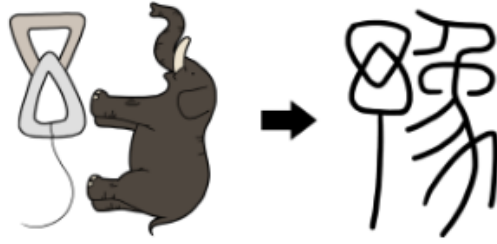
소전

營

해서

4
-
127

형성문자①



豫

미리 예:

豫자는 '미리'나 '먼저'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豫자는 予(나 여)자와 象(코끼리 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予자는 실패에 줄이 감긴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여→예'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코끼리가 일찍 사라져서인지 한자에는 象자가 쓰인 글자가 그리 많지 않다. 豫자는 象자가 들어간 몇 안 되는 글자 중 하나로 '미리 예측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豫자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코끼리는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알고 무덤을 찾아갔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해석과 코끼리는 본래 의심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미리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는 해석이 있다.

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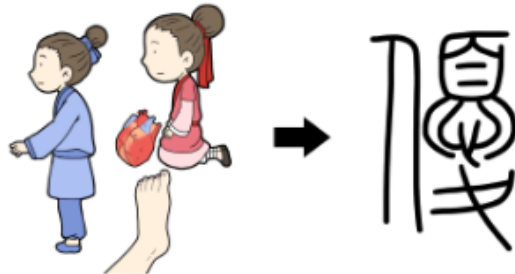
소전

豫

해서

4
-
128

회의문자①



優

넉넉할
우

優자는 '넉넉하다'나 '뛰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優자는 人(사람 인)자와 憂(근심할 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憂자는 근심·걱정을 하며 느릿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느릿한 걸음이 응용되었다. 사람의 삶이 넉넉해지면 행동 역시 여유롭게 바뀐다. 그래서 優자는 느릿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그린 憂자를 응용해 삶이 여유롭다는 뜻을 표현했다. 이러한 뜻이 확대되어 후에 '뛰어나다'라는 뜻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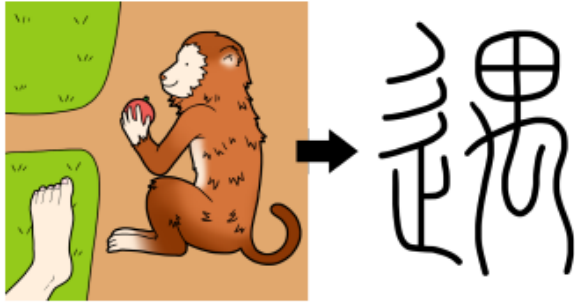
優

소전

優

해서

형성문자①



遇

만날 우:

遇자는 '만나다'나 '조우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遇자는 辶(쉬엄쉬엄 갈 착)자와 禺(원숭이 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禺자는 꼬리가 긴 원숭이를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遇자는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을 위해 만든 글자다. 그래서 길을 가는 모습을 그린 辶자가 의미요소로 쓰였다. 遇자는 '만나다'라는 뜻 외에도 '예우하다'나 '대접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상대에 대한 예를 갖춘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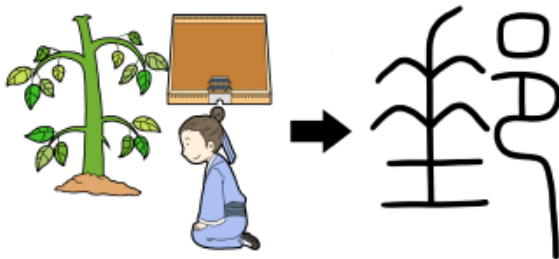
遇

소전

遇

해서

회의문자①



郵

우편 우

郵자는 '우편'이나 '역참'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郵자는 垂(드리울 수)자와 邑(고을 읍)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여기서 垂자는 풀잎이 드리워져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러나 郵자는 垂자가 아닌 '변방'이라는 뜻의 陲(변방 수)자와 邑자가 결합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郵자는 성과 변방이 서로 문서를 전달하던 '역참'을 뜻했던 글자였기 때문이다. 고대에는 변방을 지키던 지역과 성내 관청이 주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했다. 주로 말을 달려 문서나 정보를 전달했었는데, 중간에 말을 갈아타는 곳을 郵라고 했다. 그러니 郵자는 변방을 뜻하는 陲자와 성안을 뜻하는 邑자가 결합하여 변방과 성을 연결한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郵

소전

郵

해서